

# 부처님 향한 지극한 정성은 같아

**□** 더위를 식혀준 단비가 내린 8월 2일 오후,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육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과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Thupten Jigmes) 스님이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한국과 티베트를 대표하는 불교 의식 대가들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툽텐 스님은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규토 사원의 최고 범패승이다.

툽텐 스님을 보자 일운 스님은 합장하며 "지난 법연사 모래만다라 전시장에서 툽텐 스님의 밀교 의식을 관람하며 음률이 한국의 범패 가락과 비슷해 놀랐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그러자 툽텐 스님은 "한국의 범패는 잘 모르지만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정성으로 올리는 예식이만큼 비슷한 가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두 스님은 염불당으로 자리를 옮겨 두 나라 불교의식의 계승 교육 방법 등 전반적인 불교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 한국의 영산재와 티베트의 밀교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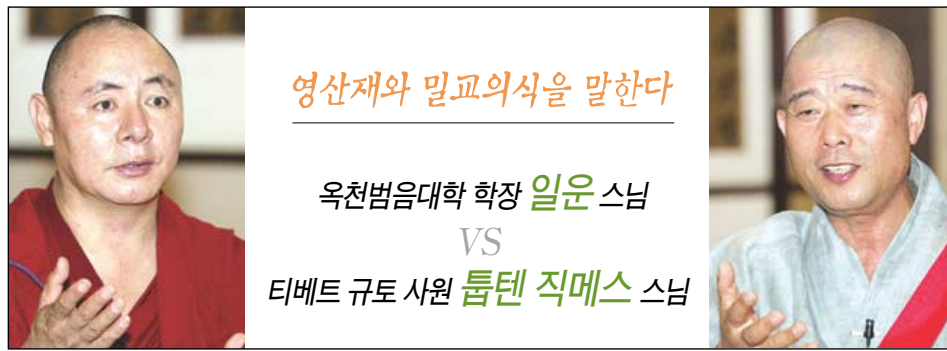
일운 스님: 한국 불교에서는 천도재를 보통 49재(齋)로 부르는데, 그 규모에 따라 상주권공재(常住權供齋), 시왕각배재(十王各拜齋), 영산재로 나뉘어진다. 상주권공재는 보통 1일, 시왕각배재는 2일, 영산재는 3일이 걸리지요. 규모가 가장 큰 영산재는 범패사상(法華思想)에 따라 석가모니불이 설법하던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상징적으로 설하고 지내는 의식입니다. 즉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일시적으로 영산회상이 되는 것으로 영혼은 이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극락왕생하게 되는 거지요. 야외법회(野外法會)로 진행되는 영산재는 개인적인 발원보다는 국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툽텐 스님: 티베트에서도 11세기부터 한국의 영산재와 같은 천도 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티베트는 49재를 끝으로 영가 천도는 끝이 납니다. 한국처럼 매년 제사를 지내지 않지요. 49일이 지나면 영가는 다시 환생해 우리 이웃으로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제를 지내지 않는 대신 부모 형제나 이웃들에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 ▲ 범패의 소리 발생은 어디서 나오나

일운 스님: 한국에서 노래 할때 보통 국악인 민요는 가슴 아래에서 소리를 끌어내는 반면 범패는 제일 아랫배에서 소리를 끌어냅니다. 가장 차원이 높은 발생법이지요. 그래서 득음(得音)을 위해 10년 이상을 연습하고 배웁니다.

툽텐 스님: 그렇군요. 밀교사원의 범패는 심장에서부터 목부분까지 소리를 끌어올립니다. 약간 특이한 발생법이라서 미국의 권위있는 소리연구소에서 저희 소리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 세가지 음파가 나온다고 합니다. 즉 멀티 사



영산재와 밀교의식을 말한다

육천범음대학 학장 일운 스님

VS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

운드라고 하더라구요. 소리를 들을때는 굉장히 저음인데 실제로 나오는 고저는 소프라노 수준으로 높다고 합니다.

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 밀교에서는 소리전 목을 풀어주는 '허덜퐁'이 있는가

일운 스님: 한국에서는 범패승들이 본 의식에 들어가기 전에 목을 풀어주는 '허덜퐁'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고음을 낼 때 정확한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발성이지요. 밀교의식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툽텐 스님: 없습니다. 바로 본 의식에 들어갑니다.

### ▲ 의식때 악기 사용은

일운 스님: 한국의 영산재에서는 북, 징과 같은 대사물과 목탁, 요령과 같은 소사물을 의식에 따

라 사용합니다. 사물을 쓰는 이유는 악귀중생을 제도하려는 목적에서지요.

툽텐 스님: 대부분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식에 따라 북과 금강저, 요령 정도를 사용합니다. 티베트 의식은 중생을 제도한다는 목적보다는 스님들의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생에게 의식을 통해 베푸는 개념도 강합니다.

### ▲ 후진 양성 교육은

일운 스님: 한국은 영산재를 1973년부터 국가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해 놓고 전통 보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활발한 편이지요. 특히 저희 태고종에서는 육천범음대와 동방불교대학에서 범패를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학장으로 있는 육천범음대에서는 준비유자, 전수교육조교 등 탄탄한 강사진들이 범패승 배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툽텐 스님: 의식을 배우는데 저는 14년이 걸렸습니다. 규토 사원에서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다. 스승과 마주앉아 득음할 때까지 1:1 지도를 받습니다. 보통 저희 사원에는 2백명 정도의 범패승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발된 다섯명 중에서 다시 달라이 라마가 최종 1명을 뽑습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인간문화재 같은 개념이 되겠네요.

정리=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영산재, 국가 안녕·발전 기원 많아 저음서 고음으로 이어지는 소리 비스

티베트, 환생 믿기에 49재후 천도 없어 밀교의식 최고수는 달라이라마가 선정

육천범음대학장 일운 스님(왼쪽)과 티베트 규토 사원 툽텐 직메스 스님이 한국과 티베트의 범패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해설이 있어 두배 즐겁다

### ■ 니르바나 필하모닉 키즈음악회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8월 13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재 반월아트홀 대공연장에서 '해설이 있는 키즈음악회-세계민속음악여행'을 마련한다.

지방 순회공연 두 번째인 이번 포천 공연에서는 김양희 아나운서가 해설을 맡았으며, 일렉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씨가 특별 게스트로 초청돼 깜짝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볼자 시각장애인 김지선씨의 바이올린 독주도 열린다. '세계민속음악'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에서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부장 한정스님과 함께 개최된 바 있다. (02)415-2599

## 한국 등화구의 변천사 한눈에

### ■ 국립민속박물관 '빛·등(燈), 전통과 근대' 특별전

#### 사찰 공양구 촛대 등 250여점 선보여

온 사바세계를 환하게 비추준 등(燈)의 역사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8월 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서울 경복궁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리는 특별전 '빛·등(燈), 전통과 근대'가 바로 그것. 이번 전시에서는 초와 촛대, 등잔, 등화구(燈火具) 등 한국 등화구의 변천사와 그의 미를 보여주는 유물 250여점이 선보인다.

발빛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초와 이것을 세우는 촛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통시대의 등화구이면서 각종 의례에도 필수적이었다. 특히 절에서 공양을 드리거나 제사와 혼례에도 반드시 촛불을 켜는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조선시대 궁중의 연회와 사찰에서 사용되던 촛대 등을 1·2부에 걸쳐 전시한다. 또한 3부에서는 근대기에 들어오면서 변화된 네온 사인과 조명등을 진열해 놓았다. (02)3704-3171



"황토는 병을 치유하는 신비가 있는데"  
**황토집 건축에서부터 황토요법 [민간요법]을 상담해 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천연 황토방  
**천연황토 BIO21**

※ 천연 황토방의 특성

- 새집증후군의 해결은 물론 화재에 안전하다.
- 인체에 해로운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 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100% 생황토로 시공한다.
- 도배를 하지 않고 흙에서 자유롭게 생활한다.
- 집안에서 황토필집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 리모델링 가능

발명특허 제 0300446호

천연황토 BIO21 TEL : 041-663-4977~8  
 H.P : 016-269-1233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월정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녀 행사 모집합니다.

**승복 범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 만족할 가격

1. 고급 모직(울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90,000 ~ 210,000  
 두루막 140,000 ~ 170,000
2. 무명(억울, 순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두루막 170,000
3. 마(국내산 억울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4. 면 : 풀 안해도 됨(억울 염색)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5. 울 · 모시론  
 적삼, 바지 150,000 동방, 바지 190,000  
 두루막 14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 250,000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8. 신도용 조끼 · 바지(모직 황토 억울염색)

■ 시원한 차이나 남방, 모지, 걸방, 손가방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전시장 : 053-256-0108  
 공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9-438-0108

**아름승복**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테형강판  
**슬라브, 사질,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비모공사)

서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조은칼라지붕공사**